

KINU Insight

2019
No.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민
박형중
김진하
오경섭
홍제환
정은미
이영기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북한연구실장

박형중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오경섭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홍제환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정은미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영기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 참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I. 전반적 특징과 정책방향	1
II. 부문별 내용과 특징	6
1. 정치	6
2. 경제	7
3. 사회·문화	9
4. 대남	10
5. 대외	11
III. 향후 전망	13
부록. 2019년 김정은 신년사 원문	17

I 전반적 특징과 정책방향

- 연설 내용구성: 긴장·투쟁·동원에서 안정·포용·개혁으로의 변화 추구
 - 대내적 포용과 안정, 대외적 긴장완화를 연설 전반에서 피력
 -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보였던 신년사 내러티브 기본구조에서도 변화 발견
 - 기존에는 대내외 위기 환기 → 외부 적과의 투쟁 → 내부 결속 및 계급·사상 투쟁 필요성 → 전투적 정신과 사업 방식(혁명적 총공세) 등으로 구성
 - 2019년 신년사는 투쟁적·선동적 어투와 분위기가 현저히 감소, 실용과 합리적 개혁, 대외 메시지에서는 포용적 협상과 관계 개선 자세
 - 정세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에 따라 기존의 투쟁적·호전적 이미지를 쇄신하여 정상적인 국가성을 연출하기 위한 차원

대내외 긴장고조 + 대내외 투쟁선동 + 혁명적 동원



대내외 긴장완화 + 대내외 포용추구 + (경제적) 개혁 지향

- ‘완전한 비핵화’ 의사 재천명 및 정치적 동결 선언
 - 6·12 북미정상 합의 내용에 대한 불변한 입장과 확고한 이행 피력
 - “완전한 비핵화에도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
 - 김정은 집권 이후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지도자의 육성 통해 밝힌 것은 처음
 -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 → 4불 입장(핵무기 생산, 실험, 사용, 확산) 천명
 - 4불 입장은 핵·미사일에 대한 정치적 ‘동결’ 선언으로 볼 수 있으며, 비핵화 의지와

실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정치적 발화(speech act)

- 일부 기술적 동결(핵·미사일 실험중단, 핵 실험장 폐기)을 취해 왔으며, 향후 구체화 가능성 제시

정치적 동결	기술적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재생산, 상실험, 비상용, 非확산 - 핵보유국의 핵독트린(교리) 개념 -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시설 폐쇄·핵실험 및 생산 중단, ICBM 실험 중단 - 북부실험장 폐기, ICBM 실험 중단 - 핵시설 가동중단·폐쇄(shutdown) - 핵시설 봉인(sealing), 감시(monitoring)

- 비핵화 과정을 ‘핵 동결’ 단계(신뢰조성)와 ‘핵 폐기’ 단계(본격적 폐기)로 상정
- 지금까지 취해 온 핵 동결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실천행동’에 따라 핵 동결 단계 마무리와 본격적 비핵화 단계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

□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현

- “더욱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 “하루 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갈 용의”,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 등 관계개선 의지 적극 피력
- 남북관계처럼 북미관계도 결심만 하면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개선의 선행 모델로 언급 → 북미관계 과감함과 진정성 강조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강항 의지와 기대 표출

- 6·12 합의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명, 북미 협상과 관계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 표출
-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 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라고 언급

- 2019년 북미 협상 재개와 북미정상회담 조속 추진,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 표현

□ 제재·압박에 대응한 ‘새로운 길’ 언급

-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산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새로운 길’은 ‘경제·핵 병진노선’ 회귀보다는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6·12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수사적 배수진’
- 다른 가능성은 비핵화·경제발전의 길을 북미 협상을 통해서가 아닌 중국·러시아·국제사회를 통해 갈 수도 있음을 암시
- 중국·러시아 및 국제사회를 상대로 비핵화 실천·검증,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명분 약화 및 해제 추구, 북·중 경제협력 통한 경제발전 추구

□ ‘사실상의 불가침선언’과 남북한 군비통제 확대·심화 제안

-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표현
→ 한국 정부의 의미 부여와 용어를 그대로 차용
- 남북한 ‘군사적 적대관계 근원적 해결’을 강조, 2018년 합의된 지상·해상·공중 등에서의 충돌방지 노력을 ‘조선반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된 운용적 군비통제, 나아가 구조적인 군비통제 논의로 확장할 여지
- 북한의 군비통제 적극성은 군사적 위협 해소 노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을 통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분위기 조성, 군비 축소 통한 경제발전 차원
- 2018년 군사합의 과정에서 남북한 교감이 일정 부분 반영된 제안으로 2019년 활발한

협의 통해 군사합의 추가 버전 도출될 가능성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발족·가동, 전체 GP의 전면 철거, 북한 전진 장사정포의 후방 이동·철수 등

□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 요구 통한 북미 협상 레버리지 확보

- 김정은 위원장은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중지”가 “우리의 주장”이라고 언급
- 북미 외교적 대화 중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가급적 중단한다는 분위기를 상례적인 상황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
- 미국의 상응조치로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요구
- 다만, “우리의 주장”이란 표현을 통해 입장 개선 차원에서 과도한 조건부 문턱 설정은 하지 않음.

□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 제안

-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제안
- 북한이 잘 사용하지 않는 ‘평화체제’ 용어를 사용하여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과 프로세스를 밝힌 것은 처음
- ‘평화체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 군사적 위협 해소, 군비통제 등이 들어갈 수 있는 포괄적 개념
- 북한은 전통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북미 양자의 문제로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정전협정 당사국, 다자간 협상 문제로 거론한 것은 매우 큰 변화
- 북미 협상·이행의 불확실성 완충 장치로 다자 협상을 제시 → 중국의 참여

- ‘중전선언’과 같이 요구를 특정하기보다는 ‘평화체제’라는 포괄적인 과정을 의제화 하는 접근이 북미 협상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

□ 대북제재의 우회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

-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 용의 피력
-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은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발동된 유엔안보리 제재와는 무관하게 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해 옴.
- 한국은 두 사업 중단 이후 제재 강화를 통해 제재와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 되었다고 보는 입장, 북미 협상과 비핵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외세 개입 없는 개성공단·금강산 사업 재개 요구를 통해 남측의 한미 워킹그룹 통한 우선적 해결 압박, 대북제재 예외 공간 만들려는 의도
- 향후 북미 협상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가 특정 시점에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수순으로 같 것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

□ 총괄 평가: 경제발전·평화·관계정상화

- 신년사 전반에 흐르는 기조와 핵심 키워드는 ‘경제발전’, ‘평화’, ‘관계정상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대외적으로 관계개선과 평화 지향, 대내적으로 실리적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춰 평화를 통한 경제발전, 경제발전과 평화의 동시 지향 의지 피력
- 투쟁적인 내부 투쟁과 대외 공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관점에서 2019년 과업을 제시함으로써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정세 전환 노력 예상
- 2018년에 비해 대미 및 대남 메시지에서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한 단계 높은 진전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연초부터 북미 협상 및 정상회담을 통해 모종의 결심을 내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임.
- 대내 메시지는 기존의 투쟁적 선동에서 온건한 합리적 개혁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실리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내부 개혁조치 지속할 것으로 보임.

II 부문별 내용과 특징

1. 정치

□ 대내 통치전략: 긴장국면에서 이완국면으로 전환

- 북한의 대내 통치전략은 주기적으로 ‘긴장국면’과 ‘이완국면’의 특성을 보여 주는데, 2019년 신년사는 ‘이완국면’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임.
- 2018년 신년사는 ‘전당의 정치사상적 강화,’ ‘혁명적 당풍,’ ‘혈연적 연계,’ ‘당적 지도 강화,’ ‘정치·사상사업 앞세우기,’ ‘정치사상적 위력,’ ‘불굴의 정신’ 등 사용
- 2019년 신년사에는 순화된 용어와 함께 ‘인민의 이익 최고 우선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 ‘사회주의 우리집’ 등의 표현 사용

□ 선동적 투쟁성 약화, 포용적 인민성 부각

- 국내 언급에서 온건하고 절제된 표현 사용
- 가령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우리 사회를 덕과 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 나가야” 등 투쟁보다는 포용적 접근
- 과거 계급투쟁, 불순적대분자들의 준동, 부르주아 반동문화 짓누르기, 비사투쟁 등의 거칠고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비하면 큰 변화
- 군사부면 관련 조선인민내무군·노동적위군 언급에서 계급투쟁, 불순적대분자에 대한 투쟁 등의 정치적·자극적 용어 없이 군사적 태세 향상만을 강조
- 대내외 이목이 집중된 신년사에서 최대한 온화한 정상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수사적 변화

2. 경제

□ 기업의 생산 활성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환경 구축 강조

-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 개선하며, 경제적 공간들이 기업체들의 생산 활성화와 확대적 생산에 적극적 작용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
- 아울러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
- 김정은 시대 기업 관련 제도 변화 추세로 볼 때, 기업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하는 방식으로 공식경제부문 회복 모색하려는 시도

□ 산업부문별 언급에서 전력·금속·화학·기계 등 순으로 과업 제시

- 전력공업 부문을 우선적으로 언급, 전력 문제 해결을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제시
- 금속·화학·기계공업 부문 등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우리식 주체성 강조
- 2018년과 유사하게 금속공업에서 주체적 제철·제강공정 완비, 화학공업에서 인비료공장 및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기계공업에서 기계설비들의 국산화 강조
- 올해에도 석탄을 활용한 북한 특유의 중화학공업 발전 방안을 고수할 전망

□ 농업개혁 조치의 지속: 단순 기술적 처방에서 생산자 인센티브 배려

- 2018년까지 주로 종자개량, 농사방법 개선 등 기술적 처방이나 생산 증대를 강조했지만, 2019년에는 “농장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농장원의 “개인부업 축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에 주목 필요
- 김정은 시대 농업분야 개혁 조치가 시도되고 있으나, 그 혜택이 농장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함에 따라 성과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 반영

- 농장원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 농민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생산의욕을 높임으로써 농업 생산을 제고하겠다는 취지
- 석탄공업과 관련해서도 “탄부들의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

□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군수공업 강조

- 2018년에 군수공업 부문에서 경제발전과 인민경제 향상을 추동하였음을 밝히고, 올해에도 군수공업 부문에서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
- 군수공업의 경제발전예의 기여는 크게 군수분야의 민수분야로의 전환, 군수공업 생산능력을 활용한 민간 수요 충족 차원에서 해석 가능
- 군에 할당돼 있던 무역 회사를 내각으로 대폭 이관, 내각 조직을 확장하고 자금 조달 능력을 확장하는 문제 등도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

□ 원산갈마지구 이어 새로운 건설사업 지속 예고, 자재조달의 역량강화와 국산화 및 질적 향상 강조

- 지역개발에 있어 작년에는 원산갈마지구에 주목했는데 올해는 ‘삼지연’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산갈마지구 개발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삼지연’으로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
- “마감건재의 국산화와 질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식으로 화려하게 일떠세우고……세멘트 등 건재생산능력을……”와 같이 국산화에 집중

3. 사회·문화

□ 정치투쟁의 도구에서 인민 현실과 수요에 맞는 문학예술 강조

- 기존에 정치투쟁 도구로서 문학예술을 언급했다면, 2019년 신년사는 현실과 인민의 수요를 강조
- 2018년 신년사: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으로 부르췌아반동문화를 짓눌러버려야 하겠습니다.”
- 2019년 신년사: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민족의 정신문화적 재부를 풍부히”
- 과거에 비해 외부 문화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의 변화된 가치관, 생활문화에 조응해 ‘선전선동’ 수단보다는 일상 및 정서에 호소하는 문학예술 강조

□ 교육부문 혁신 성과들과 문화예술 부문의 대외적 선전에 대해 높이 평가

- 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 채택 이후 과학교육을 위한 혁신운동 전국적 전개
- 평양교원대학의 시범 하에 전국의 많은 대학, 중학교, 소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
-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삼지연관현악단과 대집단체조 공연(‘빛나는 조국’)의 성과에 대해 만족

□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 R&D 투자 강조

- 국가경제발전 장기적 전략으로 과학기술 부문의 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현실 요구에 맞는 교수내용과 방법의 혁신을 통해 인재 육성
- 경제적 가치가 큰 핵심기술 연구에 역량 집중,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의 협력 강화

□ 사회주의 문명건설 가속화 촉구 및 국가제일주의 강조

- 온 사회 '혁명적 학습기풍과 문화정서생활 기풍' 확립을 통해 다방면의 지식과 문화적 소양 함양 필요성 제기
- 새해 첫날 노동신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표한 새 창작곡 <우리의 국기> 게재, 대중보급 활발히 전개
- 보건 부문에서 제약공장과 의료기구공장의 현대화 및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촉구, 4차 북·중 정상회담 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의 유명 제약회사 '동인당' 방문 주목

4. 대남

□ 2018년 남북관계 새로운 단계 진입 평가

- 2018년 한반도 전쟁위기를 끝내고 화해와 평화번영 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
-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는 남북한 간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 종식을 약속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규정
- 남북한이 체육교류, 철도·도로·산림·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평가

□ 2019년 남북관계 3대과제 제시: 남북관계발전·평화번영·조국통일

- 남북관계 3대과제로 남북관계 발전, 평화번영, 조국통일 제시
- 남북관계 발전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확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등 경제협력 사업 재개·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 평화번영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요구하면서 평화지대 확대 및 군사적 위협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

- 전민족적 통일논의 제안을 통해 현 남북관계 개선 국면을 유지·확대하고 전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
- 통일방안 논의 제안 통해 남북 교류협력사업 확대의 명분 확보 및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북한 내부 명분 확보
- 2019년 신년사 통해 조국통일은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원칙적 입장 표명
- 통일방안 논의를 제안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사업 확대에 대한 남한 내 저항감을 '통일논의'로 완화하려는 우회적 전술 차원
- 비핵화-체제안전보장을 둘러싼 북미 협상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일 담론으로 연대감 조성하는 차원
- 대북제재 완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 가능

5. 대외

□ 2018년 대외부문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

- 2018년은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적대적이던 조미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북한의 “국제적 권위”를 고조시키는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
- 김정은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 개최, 쿠바 대표단 방문을 언급하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우방국들과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적 성과 강조

□ 북미 비핵화 회담재개 의지 표명

-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우려와 문제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 했다”며,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듯이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
- 그러나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여 일방적으로 자국의 설정한 요구사항을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을 지속시킨 탓이라며 협상교착 상태 발생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
 -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 따르는 미국의 “신뢰성 있는 조치”와 “상응한 실천행동”을 조건으로 “더욱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유화공세
 - 미국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 언급
 - 일방적 양보보다는 자력갱생 고취를 통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자립경제 유지와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통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의 강화로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표출

□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조건 제시

- 비핵화 관련 ‘미국의 신뢰성 있는 조치와 상응한 실천행동’을 조건으로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는 ‘핵동결·비실험·비사용·비확산’의 ‘조건부 4불 정책’ 이행임을 재확인
- 4불 정책 이행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제재와 압박 해제, 한미 합동군사훈련 완전 중지 및 전략자산 전개금지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의 사실상 해제, 미·북 관계 정상화, 종전선언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
- 즉, 전통적인 ‘조선반도 비핵화’ 공식을 재차 주장한 것이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미협상 진전을 위한 여지를 남겨둠.
- 정전협정체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일로, 2018년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 배경 하에, 특히 중국의 참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여겨짐.

III 향후 전망

□ 북미협상 재개 및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 신년사는 지난 3개월의 침묵을 통해 사실상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 재개를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음.
- 미국이 긍정적으로 호응한다면, 연초 북미협상 재개와 북미정상회담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
- 1~2월 북미고위급회담, 북미실무협상, 북미정상회담까지 순항 가능성

□ 북미 비핵화·상응조치 구도: 큰 틀 비핵화 일정과 첫 단계 행동조치

- 미국은 궁극적으로 CVID, FFVD에 목표를 두고 전 과정의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짜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큰 틀의 비핵화 일정을 합의 후, 첫 단계에서 가능한 행동조치 중심으로 단계 목표 합의·이행
- 비핵화 일정: ① 풍계리·동창리 국제검증, ② 영변 핵시설 동결 → 영구 불능화, ③ 영변 이외 핵물질 추출 시설 신고·폐기, ④ 보유 핵무기 신고·폐기·이관(핵물질·핵탄두·발사체)
- 첫 단계 목표: ① 풍계리·동창리 국제검증, ② 영변 핵시설 동결 → 불능화
- 북한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군사적 위협해소),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등을 신뢰조성단계의 상응조치로 상정
- 이 둘 사이의 교환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될 가능성이 높음.

2019년 예상 가능한 비핵화-상응조치 첫 단계 합의-이행

비핵화	① 풍계리·동창리 국제검증 ②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불능화 ③ 평양 산음동 미사일 단지 폐쇄
상응조치	① 종전선언 ② 대북제재(유엔안보리) 해제 (영변 동결·불능화 확인 후) ③ 한미연합훈련 일부 전면 중단(한미 협의 자체 결정)

□ 북미정상회담 기점, 남북관계 활성화

-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군비통제의 확대·심화와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을 두고 대화가 활발히 진행 가능성
- 특히 북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고 빠르면 상반기 재개가 가시화될 가능성
- 남북한 군비통제 통해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해 새로운 버전의 군사합의가 도출될 가능성

□ 김정은 서울 답방과 4월 모멘텀

- 북한은 4·20 신전락노선 채택 1주년,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4월까지 북미 및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자 할 가능성
- 올해 4월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렸던 ‘담대한 결단’의 1년을 결산하는 시점으로 소기의 성과를 가시화하지 않는다면 통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1/4분기 북미 협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한의 확대된 군사합의와 경제협력 재개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

□ 경제 효율성 높이는 실용주의적 경제접근 강조

- 제재로 인해 대외경제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내부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가기 위한 선택

- 올해에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자립경제를 강화하고 인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총력
- 실용성을 보다 강화,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어려움 타개 시사
- 2019년 신년사 내각기능 강화, 가격, 금융 및 재정 등 분야와 관련된 조직개편 예고, 내각과 관련 기관들이 기업의 생산 활성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환경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
- 내각이 보다 기업의 생산 및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쪽으로 혁신을 주문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을 위한 교육 혁신 사업 계속 추진

-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 사업이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추진될 전망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에 따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도 ‘모범과학기술보급실 쟁취운동’이 전개되고, 전국에 과학기술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고급기술중학교 신설 및 지역별 과학기술도서관 건립 등) 사업 지속
-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을 맞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 강화 및 권위 있는 국제학술잡지 논문 게재 및 학술교류활동 독려로 올해 남북 학술교류 활동 증가 예상

□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건설 사업의 마무리 단계 진입

- 2020년을 완공목표로 하는 삼지연군과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
-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제제가 완화되면 백두산·삼지연과 원산 지역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

□ 문학예술 부문에서 ‘국가제일주의’ 이데올로기화 강화

- 경제제재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내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애국심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제일주의’ 선전선동 강화 전망
- 새로 창작된 노래 〈우리의 국기〉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대중적 교양학습을 전개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 수행을 독려

□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예상

- 남북한은 사회문화, 체육, 산림·보건의료 등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남북한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예술단 상호 방문 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교류를 증진하고,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출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 등을 공동 추진
- 남북한은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1~2차례 이상 진행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산림협력, 전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방역·보건의료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올해 개최 예정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서울), 광주 FINA 수영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북한 선수 참가 및 응원단 방문 예상
- 2023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노력 등 지자체 단위의 남북한 체육 교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부록 2019년 김정은 신년사 원문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동포형제자매들!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지울 수 없는 또 한 번의 역사의 깊은 발자취를 남기며 조국과 혁명, 민족사에 뜻깊은 사변들이 아로새겨진 2018년을 보내고 희망의 꿈을 안고 새해 201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 즈음하여 나는 격동적인 지난해의 나날들에 우리 당과 숨결과 보폭을 함께 하며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 헌신하여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에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우리와 마음을 같이한 남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적 진보와 발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수반들과 벗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의 전진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데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은 자주권 수호와 평화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제 손으로 마련하고 부강조국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에 펼쳐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되고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가 계속 높아가는 속에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 뜻을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9월의 경축행사들을 통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영웅적 조선인민의 강렬한 의지를 세계 앞에 힘 있게 과시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인민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관철에 떨쳐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나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의 성과를 확대하였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공지와 보람으로 보기만 해도 흐뭇한 각종 운전기계들과 경공업 제품들의 질적 수준이 한 계단 도약하고 대량 생산되어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석탄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결사적인 생산투쟁을 벌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알곡증산을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 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당의 웅대한 구상과 작전에 따라 노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방대한 대건설사업들이 입체적으로 통이 크게 전개됨으로써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끄떡없고 멈춤이 없으며 더욱 노도와 같이 떨쳐 일어나 승승장구해나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역센 기상과 우리의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이 현실로 과시되었습니다.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았으며 교육의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고 전국의 많은 대학과 중학교, 소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을 창작 공연하여 대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주체예술의 발전 면모와 특유와 우월성을 뚜렷이 시위하였습니다.

동지들! 혁명의 연대기에 자랑찬 승리의 한 페이지(페이지)를 새긴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국가의 불패의 힘에 대하여 다시금 확신하게 되

있습니다. 부정의의 도전을 맞받아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우리 국가의 자강력은 끊임없이 육성되고 사회주의 강국으로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당을 따라 승리의 길을 멈춤 없이 달려 조국청사에 빛나는 위훈을 세운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지들!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 속에서 더욱 세련되고 역세여진 우리 당과 인민은 보다 큰 신심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나섰습니다. 올해에 우리 앞에는 나라의 자립적 발전능력을 확대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할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힘과 토대, 우리 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이 있습니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투쟁할 때 나라의 국력은 배가 될 것이며 인민들의 꿈과 이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노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온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정신과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단계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정비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작전을 바로하고 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책들을 강구하며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 있게 조직 동원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사업에서 중심을 틀어쥐고 연쇄고리를 추켜세우며 전망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자각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

기관들은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공간들이 기업체들의 생산 활성화와 확대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인재와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 자원이고 무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 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 발전을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새 기술 개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용적이며 경제적 의의가 큰 핵심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지적 창조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문제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것입니다.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여 현존 전력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절실한 부문과 대상부터 하나씩 개선 현대화하여 전력생산을 당면하게 최고 생산년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나가며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르기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이용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은 자립경제발전의 척후전선입니다. 석탄이 팡팡 나와야 긴장한 전력문제도 풀 수 있고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연료, 동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에서는 화력탄보장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순간도 멈춤없이 정상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떨쳐나 탄광

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 있게 지원하며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탄부들의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경제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주체화 실현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된 제철, 제강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 운영하면서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추며 철생산 능력이 늘어나는데 맞게 철광석과 내화물, 합금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작전안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인비료공장 건설과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다그치고 회망초공업과 인조섬유공업을 발전시키며 현존 화학설비와 기술공정들을 에네르기 절약형, 노력 절약형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화학비료공장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2.8 비날론연합기업소의 생산을 추켜세우는데 국가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 부문에서 규율 강화의 된바람을 일으키고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높여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기계제작공업 부문에서는 기계설계와 가공기술을 혁신하여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개발 생산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증산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내각과 해당 부문들에서는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적 지도를 실속 있게 짜고 들어 올해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밝혀준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쥐고 나가며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 활성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공동 축산과 개인부업 축산을 장려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물고기 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화하며 수산자원을 보호 증식시켜 수산업 발전의 새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현대화, 국산화, 질 제고의 가치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생산보장하며 도, 시, 군들에서 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적으로 일신하고 자체의 원

료, 자원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대건설 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려야 합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대를 대표할 대상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와 건설 공법들을 계속혁신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와 질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식으로 화려하게 일떠세우고 인민들이 문명과 락을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인 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는데 맞게 세멘트를 비롯한 건재생산능력을 우리가 계획한대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림녹화와 도시 경영,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증산하고 절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 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균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직들은 무슨 일을 작전하고 전개하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이 바라고 덕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달라붙어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나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생활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짓뭇개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 듯이 훌륭하게 꾸려 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명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기풍과 문화정서

생활기풍을 세워 누구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 부문에서는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민족의 정신문화적 재부를 풍부히 하고 오늘의 혁명적대진군을 힘 있게 고무 추동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 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모를 일신하며 의료봉사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에 기백과 낭만이 차넘치게 하며 국제 경기들에서 계속 조선사람들의 슬기와 힘을 떨쳐야 합니다.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와 미학관에 배치되는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우리 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4대강군화 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투쟁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계속 기적적인 신화들을 창조함으로써 혁명군대의 위력, 우리 당의 군대로서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혁명의 붉은 방패답게 우리 당과 제도, 인민을 결사보위하여야 하며 노동적위군은 창건 예순 뒀을 맞는 올해에 전투력 강화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은 국가존립의 초석이며 평화수호의 담보입니다.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게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선진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나선 전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결심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 정책 관철의 주체,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인민대중이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도 인민대중입니다. 일군들은 늘 들끓는 현실에 침투하여 모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문

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구상에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따라 세우며 끊임없이 실력을 쌓고 시야를 넓혀 모든 사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해제끼는 능숙한 조직자,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어려운 일에 한 몸을 내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밤잠을 잊고 피타게 사색하여야 하며 인민의 높아가는 웃음소리에서 투쟁의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건설에서 청년들이 한몫 단단히 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최근에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새로운 시대의 신화들을 창조한 그 정신과 본때로 당이 부르는 혁명초소들에서 척후대의 영예를 빛내어야 합니다. 격동적인 오늘의 시대에 청년들은 새 기술의 개척자, 새 문화의 창조자, 대비약의 선구자가 되며 청년들이 일하는 그 어디서나 청춘의 기백과 활력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당 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우리 인민의 강毅한 정신력이 사회주의 건설 전역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경제일군들이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떠밀어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집단적 혁신과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은 농사와 교육사업, 지방공업 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는 70여 년의 민족분열사상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습니다.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변영의 시대를 열어놓을 결심 밑에 지난해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 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서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칠 때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 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북과 남이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 데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하여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치는 우리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과 꾸바공화국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 데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당, 국가, 정부급의 래왕(왕래)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호상리해(상호이해)가 깊어지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려는 입장과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 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 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당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는 지난해 6월 미국 대통령과 만나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가 안고 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언젠가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은 결코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현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 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입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후대들의 더 밝은 웃음을 위해 결사분투할 각오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새해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혹한 경제 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 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다시 한 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 우리 인민의 역센 힘과 노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전진과정은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딪칠 것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려세우지 못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반드시 자기의 아름다운 이상과 목표를 빛나게 실현할 것입니다. 모두 다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아갑시다.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0,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KINU Insight 19-01

발 행 일 2019년 3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기획조정실 연구관리팀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인 쇄 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 통일연구원, 2019



중차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INU Insight